

예술가와 노동자의 노동, 아버지와 딸의 노동 글. 문선아 독립큐레이터

임가영 작가는 일상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정치성과 정체성에 관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일상 속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른 장소에 위치시키거나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다른 종류의 일들을 관찰하고 병치시킴으로써 그 대상과 장소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작가가 작업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대상이나 관람객들이 함께 호응하는 참여미술의 형태로 작업을 이끌기도 하기 때문에 작업들은 행위와 과정을 중시하며 장소 특정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넷페미>(2013)에서 작가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페미니즘 성향의 댓글 링크를 QR 코드로 인쇄한 후 공공장소 일인시위를 통해 오프라인에 선보였고, <야간작업>(2015)과 <모스 부호>(2016)에서는 미술대학교라는 공동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예술가의 작업과 경비원의 업무를 인터뷰를 통해 병치시키고 이를 모스 부호로 만들어 대비시키기도 했다.

2014년 작 <Painting>을 확장한 이번 개인전 <워크 워크 프로젝트>(2016)에서 역시 기존 작업과 유사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작가는 수십 년간 페인트 공으로 일해 온 아버지를 전시장이라는 이질적인 공간에 초대하여 전시장의 벽면을 메울 색을 선택하고 칠하게 한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전반의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돼 영사되고, 중간 중간 나온 대화 중 인상적인 문장들이 발췌되어 전시장의 곳곳에 위치한다. 다른 한 편에는 아마도 일상의 모습일, 아버지가 전시장에 페인트를 칠하는 행위가 영상으로 기록되어 반복된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하나의 일상적 행위를 다른 장소에 위치시키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다른 종류의 일들을 병치시키는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선보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행위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준비과정이 아니라 전시의 과정이자 결과물로서 아버지의 페인트 칠 노동을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사뭇 다른 자신의 노동과 병치시킨다.

프로젝트에서 미술 제도이자 장소로 작동하는 전시장의 장소 특정성이 발휘되어 두 가지 노동의 정체성이 규정되는데, 두 노동이 완전히 다른 지점을 향한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버지의 노동은 전시장 안에 배치되면서 아버지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전시과정에서 페인트 색상을 아버지가 직접 ‘선택’해달라는 작가의 요구는 언뜻 사소하게 들리지만 아버지의 일상에 꽤나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고, 영상과 벽면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 아버지는 느닷없이 자신을 주체의 자리에 세우는 이 요구를 불편하게 받아들인다. 일찍이 헤겔(Hegel)은 노동을 개개인이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 시킴으로써 자기를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간주했는데, 아버지는 수십 년간 색상 선택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기보다 고객들의 요구대로 정해진 색을 칠해왔다. 따라서 아버지의 노동은 헤겔이 말한 진정한 노동이라기보다 생계를 위한 노동, 즉 자본화되어 의미를 잃은 채 타인의 의지를 따르는 도구화된 노동에 가깝다. “우린 정하지 못하지 일시키는 사람이 정하지”, “그냥 노동하는거야 우리는”이라는 텍스트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상황을 대변하는데, 작가가 이 텍스트들을 드러내는 형식이 흥미롭다. 전시준비과정 중에 나온 아버지의 말들을 취사선택해 벽면에 미리 기입한 후 페인트 칠이라는 일상적인 노동 행위로 덮어 은닉하다가 페인

트라는 노동의 결과물이 마르면 벗겨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한 것인데, 장소의 이동을 통해 일상을 벗겨내고 아버지 노동의 정체성을 드러내려한 작업의 방향과 꼭 닮아있다.

한편, 노동의 도구화는 비단 아버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노동에 대한 호응으로서 작가는 전시장 안에 스스로를 다시 위치시킨다. 전시장의 한 편에 반투명한 부스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본인이 기존에 해오던 웹툰에 색을 칠하는 웹툰 어시스턴트 아르바이트를 묵묵히 수행한다. 이 일은 아버지의 페인트 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장소에서는 작가 역시 한 명의 노동자로서 고객인 웹툰 작가와의 협의 하에 지정된 색을 칠해나갈 뿐이며, 이는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것이다. 작가는 <워크 워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구조를 생산해냈다는 점에서 자기실현을 하는 진정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시장 안에 위치한 작가는 아버지와 똑같이 상품, 노동 과정,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있다. 이로써 임가영은 오히려 전시장 바깥으로 나설 때 예술가가 되고, 전시장 안에 들어서면 생계를 꾸려가는 아르바이트생이 된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는 전시장 안에서 작가가 되고 전시장 밖에서는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노동자가 되곤 하는데, 이 작업에서 임가영은 정확히 반대의 경우를 재현하며, 때문에 예술가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이상하게 중첩되고 뒤틀리게 된다.

노동자와 예술가, 노동과 예술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지점을 드러냄으로써 작가가 만들어내는 이중적 정체성은 작가가 일하고 있는 부스의 옆에 위치한 영상에서 집약되어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칠하고 있는 웹툰 화면의 일부를 확대하여 실시간으로 스크리닝하는데, 지나치게 확대된 스크린 상에서 점, 선, 면으로 해체되어 드러나는 색면은 언뜻 추상회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 영상은 작가가 만들어낸 작업이자, 동시에 노동 결과물의 기록이라는 중첩된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작가는 ‘칠하는 행위’(paint)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는 예술과 노동의 접점에서 작업과 비작업이 모호해지는 경계선을 노려 고의적으로 흐트러면서 정체성을 끊임없이 중첩시키고 분열시킨다. “몰라 미술하는 사람은 고급이고”, “미술 뭐 돈 버니”, “고급인데 고급이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너는 왜 하필이면 그 뺨끼 칠하는 거를 미술을 했는지”, “그 까짓거 아무색깔이나 나나 너나 똑같지”라는 아버지의 말들은 노동과 자본을 동일시하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도 예술가는 과연 다를 수 있는지를 되묻는 작가의 의도를 한층 심화시킨다.

이제 ‘왜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아버지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물어질 차례다. 지금까지의 논의만을 따르자면 전시장 안의 노동자가 굳이 아버지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워크 워크 프로젝트>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참여미술’의 성격을 지닌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므로, 작가가 아버지를 통해 정확히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수십 년간 ‘가족’이라는 커뮤니티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관찰해왔을 아버지로 하여금 당신의 노동이 도구화된 상황을 인지하게하고 이를 진정한 노동으로 전환시키고 싶었던 것인지, 자식의 노동이 당신의 노동과 같고도 다름을 직시하고 이해하게끔 하려했던 것인지, 혹은 그 모두를 위한 것이거나 그 모두가 아닐지는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있다. 또한 참여미술의 맥락에서 본다면, <워크 워크 프로젝트>는 작가가 던져놓은 그물망이 지나치게 촘촘하여 아버지가 결정한 색으로 공간을 칠한다는 식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이미 한정되어있다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그럼에도, 작가가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아버지와 좀 더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하는 의지, 칠하는 행위를 공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예술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한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보이며, 아버지는 작가가 형성해놓은 장소 안에서 수행자이자 참여자로 역할함으로써 <워크 워크 프로젝트>의 참여미술로서의 가능성을 확보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아버지만을 위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전시장에는 노동자와 예술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정체성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충돌하는데 아버지와 임가영은 이러한 충돌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면서도 각 정체성의 대표자 격으로 위치하게 된다. 아마도 부모이거나 자식이며, 노동자이거나 작가일 관람객들은 전시장에서 생성되는 정체성의 혼돈에 공감하면서 그 공감을 기반으로 아버지나 임가영과 느슨한 커뮤니티를 새로 형성한다. 이로써 전시가 겨냥하는 참여 대상은 아버지로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자와 작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정체성에 공감을 느끼는 일반 관람객으로 다시 한 번 확장된다. 따라서 임가영과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정체성의 혼돈은 사실 전시가 형성하는 네트워크에 관련될 모든 참여자들의 정체성의 징후라고도 볼 수 있다.

임가영 작가는 <워크 워크 프로젝트>에서 전시장이라는 예술제도이자 장소 안에 아버지와 자신의 노동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예술과 노동에 대한 다층적인 결들을 노출한다. 부모와 자식, 예술가와 노동자의 노동을 병치하고 그 경계를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흐트러뜨리고 정체성을 중첩시킴으로써 전시에 참여하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규정하게 한다. 이 분열과 소외, 참을 수 없는 모호함 속에서 관람객들은 일상과 장소,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술과 노동,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